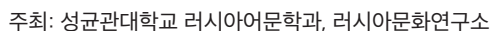


“러시아의 학문을 말하다”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층 31310호 시습재



초대의 글



다가오는 2020년은 한러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격동하는 20세기를 지나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21세기의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교류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30년이라고 하는 세월로도 쉽게 좁혀지지 않는 물이해의 간극이 두 나라 사이에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재확인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9년 가을, 성균관대학교 러시아문화연구소는 세 명의 젊은 학자들의 시선으로 러시아의 예술, 언어, 역사를 탐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놓인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자 국내에서의 러시아문화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최선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러시아문화연구소장 오종우

행사일정

1부. 학술발표

- ① **이 훈 석**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예술학 박사)
“러시아 현대미술사:
도상해석학, 사회학, 그리고 역사학의 틈새에서”
- ② **이 주 홍**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언어학 박사)
“러시아어 미래시제 연구:
상형태와 어휘의미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③ **최 정 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문학 박사)
“러시아의 학문, 역사를 통한 역사 속의 이해”

2부. 종합토론

“한국의 러시아학과 러시아의 한국학.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해화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오시거나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종각역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종각역 2,3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종로-2번을 이용하여 학교 내부까지 오시면 됩니다.

 마을 버스 종로 02번, 종로 08번, 대학로 07번

 간선 버스 102, 104, 106, 107, 108, 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301

 지선 버스 2112